

제10절 매화1리(梅花一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현종산(縣鐘山) 지맥(支脈)이 해안선을 따라 북쪽으로 뻗어있어 산이 중첩(重疊)되어 있고, 산 넘어 해안촌인 오산3리 무릉동(武陵洞)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서쪽은 매화천이 북쪽으로 흐르고, 그 건너편에 금장산(金藏山) 지맥인 대령산(大靈山)과 남수산(嵐岵山)이 좌우로 바라보이며 남쪽은 산 넘어 신흥리 대잠동(大岑洞)과 경계를 하고 있다. 북쪽은 7번국도와 인접한 금매1리와 경계를 하고 있으며 3km 거리에 성류굴이 있다. 마을회관은 1975년에 건립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용이다. 2006년에 매화면보건소가 개소하였다. 전통시장인 매화장이 닷새마다 개설되며 최근 ‘이현세 만화거리’가 조성되었다.

2. 마을의 역사

매화1리에는 대가실(竹浦), 나마실(那阿谷), 번덕골(池潭谷), 관음절(觀音절)의 자연부락이 있으며 1914년에 매화2리에 있던 매화면 소재지가 매화1리로 옮겨왔다.

1) 관음절(觀音절)

지난날 이 골에 관음사(觀音寺)라는 절이 있었다 하여 이곳을 관음절이라 하였다 한다.

2) 나마실(那阿谷)

1810년경에 진성 이씨(眞城李氏)인 성순(聖淳)이 입향(入鄕) 개척(開拓)하였고, 이어 삼척 심씨(三陟沈氏)가 살았으며, 그 후 ‘안작대기(安作芝)’라는 영남(嶺南)의 명풍수(名風水)가 이곳을 지나다가 산세(山勢)와 지형(地形)을 살펴보고 향후 많은 각성(各姓) 사람이 이곳에 자리 잡을 것이라 예언하고 이곳을 “나마실”이라 하였다고 전한다.

3) 대가실(竹浦)

1780년(정조 4)경에 강릉인 죽포(竹浦) 최배한(崔配漢)이란 선비가 그의 조부를 추모하여 조부의 호(號)를 따서 이곳에 매죽당(梅竹堂)을 창건하고 후진을 육성하였다 하여 이곳을 대가실(竹浦)이라 하였다고 전한다.

4) 번덕골(池潭谷)

지난날에 큰 홍수(洪水)가 나서 못(池)이 생겼고 주위의 경관이 아름다워 번덕골(池潭谷)이라 하였다 한다.

3. 가구 분포

총 248세대가 거주하며 울진 장씨(蔚珍張氏), 강릉 최씨(江陵崔氏), 평해 황씨(平海黃氏), 평택 임씨(平澤林氏), 진성 이씨(眞城李氏), 경주 이씨(慶州李氏), 영양 남씨(英陽南氏), 신안 주씨(新安朱氏), 밀양 박씨(密陽朴氏), 삼척 심씨(三陟沈氏), 파평 윤씨(坡平尹氏), 경주 최씨(慶州崔氏), 삼척 김씨(三陟金氏), 담양 전씨(潭陽田氏), 안동 김씨(安東金氏), 김녕 김씨(金寧金氏), 평산 신씨(平山申氏) 등이 분포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경충단(景忠壇)

1456년에 육신제공(六臣諸公)과 함께 단종복위(端宗復位)를 모의하다가 발각되어서 순절한 삼군도진무사(三軍都鎭撫使) 정재 최시창(貞齋 崔始昌)공과 절효(節孝) 최면(崔沔)공 두 부자의 위패(位牌)를 충남 공주에 있는 동학사지(東鶴寺址) 내 숙모전(肅慕殿)에 모시고 춘추(春秋)로 제향(祭享)을 올리고 있는 바, 1932년에 공의 후손들이 죽포동에 있는 종택기지(宗宅基地) 옆에 단(壇)을 설치하고 그 충절을 기리는 제향을 매년 유림과 함께 올리고 있다.

2) 관산재(冠山峙)

매화1리 번덕골(池潭谷)에 위치한 산(山)의 형세가 조선시대의 관모(冠帽)와 흡사하다 하여 관산재(冠山峙)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3) 성황당지(城隍堂址)

매년 정월 대보름날에 제관을 엄선하여 목욕재계하고 동리의 안강과 풍년을 기원하는 지성을 드리던 곳이었다. 그러나 1972년경에 새마을사업으로 인하여 철폐되고 농경지로 변했다.

4) 울진기미독립만세기념탑과 비

이 기념탑과 비는 1989년 4월 11일에 기공하여 1991년 8월 15일에 세워진 것으로, 1919년 3·1운동 당시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한독립만세의 함성이 메아리칠 때, 이 고장에도 군민의 다수가 4월 11일을 기하여 독립만세를 외쳤다. 그 당시의 거룩한 충성심을 영세(永世)에 기리

기 위해 군민의 치성(熾盛) 성금과 국비 지원금으로 국내 최초의 스테인리스 철탑[높이 15m]과 기념비[높이 3.3m]가 만세를 불렀던 구장터에서 바라보이는 건너편에 세워졌다.

5) 장수바위

한 장수가 목이 말라 샘물을 찾던 중 마을 동쪽 산등(山嶺)에 있는 바위틈에서 샘물이 솟아나고 있어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는데, 그 바위에 지금도 무릎을 꿇은 흔적이 남아있어 장수바위라 부르고 있다.

6) 죽포사(竹浦祠)

1863년(철종 14)에 죽포동에 창건한 사우(祠宇)로서, 영조 4년 이인좌의 난을 평정하기 위하여 의병을 일으킨 매죽 최경원(梅竹 崔景遠)공과 문학이 출중하여 후진을 가르친 죽포 최배한(竹浦 崔配漢), 그리고 1794년(정조 14) 공령시(功令試)에 뽑혀 관동빈여록(關東賓與錄)에 등재되어있는 죽사 최주태(竹社 崔柱台)공의 삼위(三位)를 추모하여 향인(鄉人)들이 세웠다. 그러나 1868년(고종 5)에 철폐령에 따라 철폐되었다.



<그림 12> 울진기미독립만세기념탑비